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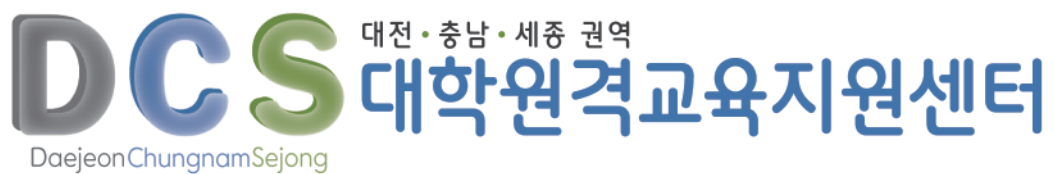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권역 내 대학·전문대학을 연계하고 지원하며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원격교육 생태계를 구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DCS Together>에서는 원격수업 혁신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최신 교수법 동향, 수업노하우, 정책연구 결과,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권역 내 공동활용 가능한 강의녹화 스튜디오를 충남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활용이 가능한 원격강의 콘텐츠를 개발 및 공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학습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이하 CTL)는 대부분 2000년대 초에 만들어져 10여년 역사를 가진 데 비해, 미국 대학의 CTL은 미시건 대학의 CRLT(Center for Research on Learning and Teaching)가 1962년에 최초로 설립된 이래 고등교육의 교수법과 학습법 개선을 위해 노력한 역사가 50여년을 넘고 있다.

미국 여러 대학들 가운데 미시건대학교의 CRLT와 하버드대학교의 CTL인 Derek Bok센터에서 교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수방법 중에 출석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한 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시간 어색한 분위기 깨기

Center For Research on Learning and Teaching, 미시건대학교

출석수업 첫 시간은 수강생과의 어색함을 없애고 생산적인 대화를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긴장감을 덜고 배울 내용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미시건대학교 CRLT에서 제공하는 Icebreaking 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교과목의 키워드를 칠판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이 키워드로부터 받은 교과목의 첫인상을 노트에 적고,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도록 합니다.
- 학생들의 기호에 관한 별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통수단을 가장 좋아하느냐?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나? 등

-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꺼내 발행연도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전 중 가장 최신 혹은 오래된 동전을 교수자가 준비한 컵 속에 넣고, 해당 년도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사건)을 이야기 하도록 합니다.
- 짝 활동 : 수강생 두 명씩 짝을 지어 번갈아 인터뷰를 하도록 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교과목의 주제와 관련된 경험으로 합니다.
- 소그룹 활동 : 소그룹 내의 학생들이 모두 가진 공통점과, 한 학생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을 하나씩 찾도록 합니다.
- 교실전체 활동 : 수강생들 모두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름에 얹힌 흥미로운 기억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 각각 학생들에게 자신에 관한 독특한 사실 또는 이야기를 한 가지씩 적도록 합니다. 적은 내용을 한 곳에 모은 후, 돌아가면서 한 장씩 뽑아 읽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아봅시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강의 만들기 20가지

Derek Bok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하버드 대학교

1975년에 설립된 하버드대학교 CTL은, 센터에 적극적인 지원을 했던 총장 Derek Bok 박사의 이름을 따서 1991년부터 "Derek Bok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으로 불렸다. 우리나라 대학과 마찬가지로 하버드대학교에서도 강의식 방법은 여러 가지 교수법 가운데 모든 교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면서 교수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강의는 많은 양의 수업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강의 중에 학생들을 참여시킬 경우, 학습을 촉진하고 수업내용에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다음은 하버드대학교 CTL 홈페이지에 제시된 '학생들이 참여하는 강의 만들기 20가지' 팁이다. 출석수업에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시킬 방법을 찾는다면 참고가 될 만한 자료이다.

강의시작

-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 강의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기다린 후 학생들의 답변이나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 학생들에게 각자 자신의 답안을 적게 한 후 소그룹으로 답을 모으도록 하면, 학생들이 가진 가정(assumption)을 알아낼 수 있고, 공부하게 될 주제를 흥미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이끌어내기

- 편안한 톤의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학생의 질문이나 코멘트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비판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 보다 쉽게 학생들이 대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학생 이름을 함께 불러 격려해 줍니다.
- 교수님의 의견이나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질문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 학생이 질문을 하면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다른 학생들이 답해보도록 합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하기

-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면, 강의는 학생들과의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 강의 중간중간 중요한 포인트에서 잠시 멈추고, 앞서 다룬 강의내용에 관한 다지선다형 퀴즈를 학생들에게 냅니다.
-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내준 읽기자료가 있다면, 이를 언급함으로써 과제를 부여한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 핸드아웃이나 지도 등의 자료를 이용할 때, 교수님께서 자료에 대해 말씀하시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보았는지를 질문합니다.

강의형식을 다양하게 꾸미기

- 학생들에게 수업내용 섹션별 프레젠테이션, 역할극, 토론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강의의 형식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 학생 수가 많은 클래스에서 토론을 할 때, 학생들을 짝수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훌쩍 그룹별로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 교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예시가 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토론에 활용합니다.
- 강의를 멈추고 교수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1~2분간 종이에 적은 후, 학생들이 질문에 대해 토의하도록 합니다.
- 학생이 교실 앞으로 나와 칠판에 소그룹의 토론결과를 적도록 합니다.

강의 마무리하기

- 강의 마지막 일정시간을 질의응답시간으로 갖습니다.
- 학생들이 수업 후에 연구문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이용합니다.
- 강의 마지막이나 적절한 시점에 학생들에게 한 차시 수업내용을 아우르는 하나의 질문인, '퀴즈'를 냅니다.
- 강의 마지막에 수업내용의 요지나 중요 질문을 적도록 하는 1분 페이퍼 시간을 갖습니다.